

회개의 기도와 말씀

2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7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8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 같이, 참외밭의 원두막 같이, 에워 싸인 성읍 같이 겨우 남았도다

9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10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19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사1:2-20)

감사의 말씀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6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7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8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9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10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136:1-10)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 성경: 이사야 58장 1-8절

Tag:

1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혀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2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말한다."

3 주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께서 알아 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생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4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않된다.

5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께서 너희를 기쁘게 받으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 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끊어 주는 것, 압제 받는 사람들을 놓아 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7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양식을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 들이는 것이 아니냐? 혈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8 그러면 네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네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네 의를 드러내신 분이 네 앞에 가실 것이며, 주의 영광이

네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사58:1-8)

1절 말씀은 큰 소리로 무엇이 회개할 것인지를 알려 주어라.

- 회개에도 질과 수준이 있다.
- 어린이는 엄마의 말이 기준이다.
-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 누구도 하나님 이외에 회개의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하라.
- 누구든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신의 이념으로 죄책감을 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위선자요, 사기꾼이다.
- 누구든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머리를 쥐어 짜면서 성도들을 괴롭힐 생각이라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 하나님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 그렇다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는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에 포로일 뿐이다.

2절 말씀은 마치 자신들이 가장 정의로운 자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 자기 이념이 의가 되는 시대에게 주는 경종이다.
- 인본주의가 의가 되는 시대에게
- 포스트 모더니즘이 의가 되는 시대에게
- 공산주의가 의가 되는 시대에게

3절 말씀은 금식을 실례로 들어서 설명하시는 말씀

- 우리가 왜 금식합니까?
- 당시 포로들에게 금식일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던 괴로운 날을 기념하며 금식하던 풍습이 있었다.
- 뼈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왜 그런 고통이 임했는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금식하며 회개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으니 금식할 의무와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다.

-그들의 사상이 세속화 되었고, 그들의 사명,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신앙을 더럽히지 않는 사명을 잊었다.

-오히려 이방 땅에서 향락에 빠졌다. 세속화 되었다.

-그러면서도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켰다.

-요즘은 노동자가 갑질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사장들이 갑질하는 세상이었다.

-누가 되었든 자신의 처지에서 갑질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갑질에 하나님은 노여워 하신다.

4절;다투고 싸우면서 금식함.

다투고 싸우는 것을 회개하면서 금식해야 할 판에 다투고 싸우면서 상대방과 전투하면서 금식한다. 위선이다.

-호소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호소하라.

-그리고 다투면서 호소할 일이 있다면 금식은 하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도 율법주의적이라면 나는 싫다.

-싸우려거든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하라.

5절은 허례허식에 관한 말씀이다.

-당시 금식의 풍습은 머리를 숙이고, 굽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 것.

-몸을 괴롭게 하고 수치를 잊지 않는 행동이었다.

-주여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오니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6절. 차라리 부당한 결박을 풀어 주어라. 그것이 진짜 금식이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먼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를 행하고, 악을 버리는 것이 금식의 첫걸음이다.

-여전히 부당하게 결박해 놓으면서 어찌 회개한다고 하느냐.

-명예의 줄을 끊어 주어라.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이래야 된

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이념으로 사람의 발목을 잡고, 어그로를 끌고 있으면서 자신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찌 금식이겠느냐.

-모든 멩에를 꺾어라. 멩에란 소의 목에 구부러진 막대를 얹어서 무거운 짐을 지우는 도구.

-요즘은 특히 공산 정부가 교묘한 술책으로 국민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경제적 행위.

-중국과 북한의 보이스포싱법들이 국민들의 등에 빨대를 꼽았다.

-전세사기도 이들의 소행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악랄함이 보통을 넘는다.

7절 말씀이 진정한 금식. 금식은 꼭 음식을 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넓게 보면 하나님의 선행을 잊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 그 심판을 기억하면 금식하는 것인데,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행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곧 진정한 금식의 의미가 된다. -금식의 적극적 행위가 곧 선행임.

8 그러면 네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네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네 의를 드러내신 분이 네 앞에 가실 것이며, 주의 영광이 네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사58:1-8)

* 진정한 금식의 결과

-네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다. 너는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된다. 네가 바로 빛이 된다.

-너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것이며, 그 빛을 발하게 되는 너는 곧 빛과 소금이 되리라. 윗 구절과 연결지어 해석하면 너의 선행을 말함.

-네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치료하는 광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의를 드러내실 것이다.

-주의 영광이 네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멩에를 벗으라 성경: 이사야 58장 9~14절

Tag: #자유 #멍에 #

9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멩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매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13 만일 안식일에 네 밭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사58:9-14)

9절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평상시)

-부르짖을 때 사건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하나님. (위급할 때)

***조건절 ‘만일’ 내가 ~ 하면 내가 ~하겠다.**

첫 번째 조건; 멩에를 벗어라! - 참 자유를 누려라!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라. 휘둘리지 마라. 죄에게 포로되지 말라. 시키는 대로만 하는 무뇌충이 되지 말라. (그렇다고 상사가 판단할

일을 하급자가 판단해 주는 것은 금지-다만, 위해서 일하는 자는 그가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돕는 자일 뿐.)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 하나님.

-내게 당당한 자유의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사람이 사람인 이유 중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기 때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지만, 이런 표현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지만 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나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엄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빚으셨다. 나는 상품이 아닌 고유번호를 가진 작품이다. 나는 복제인간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이러니한 표현일지 몰라도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임을 스스로 깨우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셈이다.

-하나님은 나와 대화 상대시며, 친구시며, 아버지시며, 사업 파트너시다. 하나님은 나의 업적을 귀하게 여기시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며, 나의 존재를 가장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존중이라는 방법을 통해 서로의 자유의지의 영역은 침투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는 의미를 깊이 깨달을수록 멍에를 벗는다.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 핵심이다.

-자유의지의 책임 범위와,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자유의지가 갖는 힘과 사람들 간의, 즉 자유의지들 간의 역학관계가 얼마나 미묘한지를 가늠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자유의지의 역할이 커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 위협하지만 자유의지를 허용하시고 무한하게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제대로 활용했을 때에 얻게 되는 유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시는가?
- 하나님께도 자유의지가 있으시고 모든 지혜와 능력까지 겸비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께는 온 인류가 집단적으로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말미암은 모든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다.
- 올바른 자유의지의 사용의 첫 번째 가장 유익한 규칙이며 비법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다. -이 논리는 결코 모순이 아니다.
- 모든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설계이며, 그것은 돌연변이로 인한 **기형의지**가 아니다.

- * 이런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멍에를 벗는다면,
- * **손가락질**(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핑계-자유의지가 사라진 존재의 초라하고 치욕스럽고 유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 * 허망한 말(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순간 위기 모면용 골목의 악동 습관)

- 진정한 금식(금식은 악과 그 근원인 욕심을 절제하는 것의 대표적 행위)으로서의 적극적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멍에를 벗으면, 내가 속히 응답하리라.
- 응답이 늦다고 생각되면 기다리는 동안 선행을 먼저 하라!

10절

- 어려움에 처한 자, 주린자를 보면 네 심령이 동하라.
- 요즘에는 그 나라의 문화를 개선 시켜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
- 그런데 문화적 개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직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선교
-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어둠이 낮이 되리라. 누구에게는 어둠의 시절은 있다. 그러나 그 어둠을 거두는 길은 하나님의 구원.

-절망 가운데, 질병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금 일어나세요.

-예수님의 보혈은 당신의 죄와 저주를 씻고 끊는다.

-베풀고, 희생하고, 섬기며, 봉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11절

11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그는 메말라도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

네 뼈는 견고하게 되리라

-너는 물댄 동산과 같다. 무엇을 하든지 생기가 돈다.

12절

12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너로부터 난 자들이 형통하리라.

13 만일 안식일에 네 밭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공부하며, 전도하는 날로 삼으면 좋다.

14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
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된다.

-내 경험상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즐거움이다. 그가 형통하리라.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새로운 피조물

성경: 고린도후서 5장

Tag:

1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 땅에 있는 장막 집;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기도 함
- 영원한 집, 영원한 생명이 있는 몸
- 변형이 심한 유전자를 소유한 세포가 많아지면 노화가 빠름.
- 텔로미어(남은 수명을 알려줌)도 다시 늘릴 수 있다?
- 수명과 관련된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유의미한 연구들도 많다.
- 그러나 영생을 연구하는 팀은 아직 없다. 영생은 천국에 가서.

2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3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 벗은 자; 결과적으로 영생이 없는 자. 새 몸을 입지 못한 자.

4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덧입는 이유는, 바로 나로 존재하기 위함.

5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6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 담대함; 하늘에 새 몸이 있다는 확신 때문에.
- 지금은 우리가 주와 따로 있음; 승천하여 하늘에 계심.
- 다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

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8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차라리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 좋겠다

9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나 죽으나

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받은대로 그 점수에 따라 받는다.

11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
라

-우리의 정체가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지길 바랍니다. -사실 이게 쉬
운 일은 아니다.

12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
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
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스스로를 좋은 말로 천거하는 것이라 오해할 수 있으나,

-다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13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3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정신이 아
닌 것이며,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런 것
입니다. (쉬운성경)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도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6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쉬운성경)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 결과적으로 우리가 새 몸을 입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에게 이 땅에 침투하게 되었다.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